SOCIETY

2025년 5월 9일 금요일

## 자립준비청년 '해시태그 멘토링' 광주청년센터, 9월까지 20회 운영

광주청년센터는 8일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해시태그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해당 프로그램은 진로 설정, 학업, 자격증 취득,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자립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한부모가족 자녀 등 자립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년들이다. 사업 기간은 오는 9월까지다.

센터는 '해시태그 멘토링'을 통해 청년들이 겪는 정보 부족, 정서적 고립, 진로 혼란 등을 해결한다.

멘토링은 총 20회에 걸쳐 진행되며 전문가들이 멘티들에게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코칭, 진로 탐색 등의 진로 상담을 제공한다. 금융 관리와 심리정서 회복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도 병행된다.

센터는 지난 7일 광주청년센터 상무점에서 진행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선발된 멘티 20명과 멘토 20명의 첫 만남을 진행했고, 해당 프로그램의 취지와 향후 운영 계획을 안내했다.

광주청년센터는 멘티 참여자에게 최대 80만원의 지원하고, 참여수당 60만원을 별도로 제공한다. 필요시 외부 자원 연계와 같은 도움도 진행한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 "어버이 은혜 감사…부모님 하루, 우리의 평생"

### 남구 빛고을노인건강타운서 '제53회 어버이날' 행사
### 광주시장·시교육감 등 1000여명 참석 카네이션 전달

어버이날을 맞아 8일 광주 동구 학동 더 한우사랑에서 열린 '어르신 행복밥상 나눔잔치'에서 김홍희 대표가 어르신들께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접하고 있다. 지난 2011년 부터 시작된 행복밥상은 코로나 기간 4년을 빼고는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600인분을 준비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어버이, 당신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빛을 비춰 왔습니다."

8일 제53회 어버이날을 맞아 광주 곳곳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세대 간 사랑과 존경의 가치를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오전 광주 남구 노대동 빛고을노인건강타운에서는 어버이날의 행사가 진행됐다.

'어버이, 당신의 모든 날이 사랑이었습니다'를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주병진 대한노인회 광주시연합회부회장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90세 이상 최고령 어르신 5분께 카네이션을 전달하는 감사의 시간 △장한 어버이, 효행자, 지역사회 유공자에 대한 표창 △기념사 및 축사 △광주시립합창단의 '어머님 은혜' 합창 공연 등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초청인사 10명이 대표로 전한 '감사의 헌사:우리 모두의 목소리'에서는 광주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부모 세대에 대한 감사와 존경을 전했다.

특별공연으로 무대에 오른 까리따스 어린이집 아이들 20명은 많은 이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선사했다.

공연이 끝날 무렵 아이들의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합니다"라는 목소리에 어르신들의 입가에 웃음꽃이 가득했다.

김영자 할머니(71)는 "먹고살기 바쁜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면 고마울 정도"이라면서 "그래도 외롭지 않게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줘 고맙다"고 말했다.

행사의 마지막은 '감사의 헌사' 낭독으로 장식됐다.

강 시장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의 "부모님의 하루는 우리의 평생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자리에 늘 당신이 계셨습니다"라는 헌사가 울려 퍼질 때, 많은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눈시울을 붉혔다.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눈길을 끌었다. 건강타운 체육관 앞 광장에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이 참여한 13개의 체험·홍보 부스가 마련돼 풍성한 볼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이중 혈압·혈당 측정과 건강상담, 이혈요법 체험을 제공한 건강부스를 비롯해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 치매 인식개선 체험존 등의 인기가 높았다.

비즈팔찌와 나만의 부채 만들기 부스는 참가자들이 직접 손을 움직이며 웃음을 나누는 공간이 됐다. 커피 찌꺼기로 만든 친환경 탈취제를 나누는 부스에서는 ESG 실천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공유했다.

노인일자리사업과 장애인 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부스에서는 지역사회의 연대와 나눔이 실현됐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젊은 날 경제 살리느라, 민주주의 바로 세우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게 살아오신 어르신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건강, 일자리, 자녀 세대를 아우르는 어르신 복지를 더 촘촘하게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광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서빛마루시니어센터, 남구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제53회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됐다. 다양한 공연과 건강 체험부스 운영과 함께 점심 특식 제공 등으로 어르신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양홍민 기자 yhb9792@gwangnam.co.kr

# 북구 청년공직자, '오월' 기억하는 특색사업 전개

### 통화연결음 송출·민주묘지 참배·헌혈·오디오 방송 등

5·18 민주화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헌혈캠페인에 참여한 북구 청년공직자들.

광주 북구 청년공직자들이 오월의 의미를 되새기는 다양한 특색사업을 펼친다

8일 북구에 따르면 제31기 청년 간부회의는 '오월의 외침, 이어지는 메아리'라는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제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6개의 사업을 추진한다.

해당 사업은 주민과 공직자를 대상으로 45년 전 광주를 기억하고 뜻을 기리고자 마련됐으며 5·18 통화연결음 송출, 헌혈캠페인·헌혈증 기부, 5·18 민주묘지 참배, 주먹밥 DAY 운영, 오디오 방송 리마인드 5.18.Hz, 5·18 사적지 도보순례·줍깅 등으로 구성됐다.

이에 이달 말까지 구청과 통화 연결 시 5·18 안내 음성을 송출하고 헌혈캠페인과 헌혈증 기부 활동으로 1980년 광주의 숭고한 정신을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또 청년 간부회의는 신규 임용 공직자들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묘비 닦기, 태극기 꽂기 등의 활동도 펼치며 민주 영령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진다.

오는 16일에는 북구청 구내식당 노인 일자리 어르신들과 협업해 주먹밥을 만들고 나누는 '주먹밥 DAY'를 운영, 5·18 당시 시민들이 함께 나눴던 주먹밥의 의미를 상기하고 연대와 공동체 정신을 공유한다.

17일에는 북구 소재 5·18 사적지 4개소(전남대 정문, 광주역 광장, 무등경기장 정문, 광주교도소) 일대를 도보 순례하며 환경정비를 하는 줍깅 활동도 진행한다.

이 밖에도 오는 2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5시18분 구청 청사 내 5·18 관련 내용의 오디오 방송을 송출해 45년 전 광주의 상황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오디오 리마인드 5.18.Hz'를 추진한다.

문인 북구청장은 "올해로 제45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을 맞아 북구 청년 공직자들의 다채로운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프로그램으로 45년 전 5월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주 영령들의 존엄한 정신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광주기상청,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 미달

### 지난해 90분…이상기후 영향

광주지방기상청의 호우특보 발령 시간이 설정된 목표에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상청의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97.5분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 선행시간인 80분보다 17.5분 늘었지만, 기상청 목표인 130분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지방기상청의 호우특보 선행시간은 90분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즉, 호우 약 1시간30분 전에 이를 경고한 것이다.

호우특보(주의보·경보) 선행시간은 호우특보가 내려진 뒤 특보가 내려진 지역의 강수량이 특보 발령 기준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이중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일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호우경보는 3시간과 12시간 강우량 기준이 각각 '90㎜ 이상'과 '180㎜ 이상'일 때 발표된다.

호우특보 선행 시간은 비에 대한 경고를 일찍 접할수록 대피 시간 등을 확보할 수 있기에 길수록 좋지만 최근 관련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2019년 105분, 2020년 119분, 2021년 78분, 2022년 152분, 2023년 80분 등으로 줄었다.

기상청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인해 어느 지점에 강한 호우가 발생할 지 예측하기 힘들어 지면서 선행시간 목표치를 미달성한 것으로 분석했다.

연평균 1.1회에 그쳤던 시간당 100㎜ 이상의 극단적인 폭우가 지난해 16회 이르면서 특정 지역에 강우 경보를 발령하는 것이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북으로 폭이 좁은 띠 형태의 강한 강수가 빈번히 발생하며, 인접 지역간 강수량 편차도 크게 나타난 것도 선행시간 목표치 미달성 원인 중 하나로 꼽혔다.

지난해 7월 10일 익산에 264㎜의 폭우가 쏟아진 반면 김제에는 25.5㎜의 비가 내렸다. 두 지역간 거리는 불과 25㎞ 밖에 되지 않았다.

전국 기상청에서도 호우특보 선행시간 목표치를 달성한 곳은 전무한 상황이다.

제주지방기상청이 127분으로 목표치 130분에 가장 근접했다.

이어 수도권기상청 103분, 부산지방기상청 102분, 대구지방기상청 91분, 광주지방기상청 90분, 강원지방기상청 65분, 전주기상지청 55분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 예측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변화하는 기상과 수요자 요구에 맞는 예·특보 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성 기자